ISSUE BRIEF

이슈브리프 299호
(2021.10.18)

미군 철수 후 아프가니스탄 정정불안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제299호

이수석 한반도전략연구실
안제노 한반도전략연구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www.inss.re.kr

국문초록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와 이에 따른 정정불안,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실망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의기소침해 있던 북한에는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아프간전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군사력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탈냉전 이후 북한은 미국의 막강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미군 철수 사태를 통해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군사적 개입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은 고도의 첨단무기가 동원되는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사상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다. 아프간전은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충성심을 자아내야 하는 김정은 정권이 사상통제 강화라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데 좋은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한편 정정불안으로 인한 아프간에서의 내전 상태 내지 준전시상태의 지속은 북한이 중고무기와 신무기를 판매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올해 노동당 창건기념일에 예년에 실시해 왔던 열병식 대신 사상 처음으로 국방전람회를 개최한 것이 자신들의 전략무기를 소개 및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과도 연관된다. 대테러전쟁과 같은 미국의 일방주의적이고 팽창적인 대외정책은 당분간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삼중고에 처해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아프간 철수로 국정지지율 하락 등 내부적 입지를 높여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 간의 기싸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어 : 아프가니스탄사태, 북한, 무기수출, 사상전

미군 철수 후 아프가니스탄 정정불안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이수석 · 안제노 (한반도전략연구실)

미국의 개입과 철수의 20년

2001년 10월 7일 아프간전이 시작된 지 거의 20년 만인 2021년 8월 16일(한국 시각)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했다. 철군 후 벌써 2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프간에서는 수 차례의 자살폭탄 테러 등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또, 반탈레반 세력이 반격에 나서는 등 여전히 정정이 불안하여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에서의 철수를 최선의 현명한 결정이며 대단한 성공(extraordinary success)이라고 주장했지만, 전쟁으로 인한 아프간 국민들의 상처는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미국의 무능과 갑작스러운 철수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미국이 9.11 테러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은 목표달성을 위해 군사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신보수주의와 절대안보, 예방전쟁의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모든 테러조직이 격멸될 때까지 전쟁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은 20년간 탈레반 붕괴를 위해 아프간 정부에 막대한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는 등 아프간전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미국은 네 차례의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변경과 아프간인들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전쟁 수행으로 최종적 승리를 얻지는 못했다.

미국의 목표는 아프간에 민주주의 국가와 친미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족 중심 사회에 단기간 내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했다. 특히 미국이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킨 이후, 그동안 무기와 자금을 지원했던 북부동맹이 아닌 다수파 파슈툰인을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한 것은 부족 문화에 대한 몰이해뿐만 아니라 아프간인들의 종교근본주의와 반외세 감정을 간과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아프간인들 사이에서 미국을 점령자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었다. 또, 민간인 사상자 발생 및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신뢰 하락 등으로 인해 반미감정도 강화되었다. 옥스퍼드 대학 하워드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테러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며, 군사력 사용 시에서도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아프간전쟁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결국 또 한 번의 명분없고 무모한 미국의 군사개입 실패 사례로 남게 되었다.

현대전에서도 사상전이 중요함을 일깨운 전쟁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와 이에 따른 정정불안,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실망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의기소침해 있던 북한에는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아프간전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도 군사력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탈냉전 이후 북한은 미국의 막강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미군 철수 사태를 통해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최강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번 사태를 목격한 북한은 미국의 군사력을 과거와 같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이후에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했던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군사적 패배로 인해 나름의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고도의 첨단무기가 경쟁하는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사상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다. 올해들어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의 당규약 개정 등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 및 조직화된 당적 지도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자연재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에 있어 아프간전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상주입과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사건일 것이다. 북한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끊임없는 충성 다짐과 사상무장은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산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하는 등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청년층을 격려하고 정신무장을 강조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아프간전은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충성심을 자아내야 하는 김정은 정권이 사상통제 강화라는 출구전략을 지속해 나가는데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

삼중고 해결을 위한 북한의 무기판매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군이 아프간 정부군에게 지원한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첨단 무기들이 대부분 탈레반에게 남겨졌다. 각종 매체에서 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미제

군복, 드론, 야간투시경, M16, 험비 차량, UH-60 블랙호크 공격헬기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무기가 탈레반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미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험비 2만 200여 대, 소총 35만 8000여 정, 기관총 약 6만 정, 유탄발사기 2만 점 등을 아프간군에게 제공했다. 미국은 아프간 철수 완료 전, 카불공항의 로켓 방어 시스템과 수십 대의 군용기, 장갑차량을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의 주장대로 군수물자 중 일부가 파괴되었다고 하더라도 아프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군수물자를 모두 파괴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외신에 의하면 미군이 남긴 무기들 가운데 일부가 이미 아프간 일반 상점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발표대로라면 그동안 미국이 아프간에 제공한 무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탈레반이 블랙호크 헬기 등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정비 인력을 갖추지 못해 이런 무기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그러나 여기에 북한이 연관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2020년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가 여전히 중동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삼중고에 처한 북한이 자금 확보를 위해 비밀무기 거래를 계속 추진할 수도 있다고 본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정한 군사무기 수출금지 대상 국가들에서도 기존 설계방법을 수정하거나 역설계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를 확보하여 국제무기시장에서 활동해왔다. 특히 중동 및 아프리카 일대에서는 고장이 적다는 이유로 '북한제' 무기에 대한 인기가 높다. 북한제 무기는 흔히 전쟁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냉전시기의 노후된 무기들이 많다. 그러나 오히려 이 점이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각국이 북한 무기 구매에 매력을 느끼는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최첨단 전자식 군사 장비는 사막기후와 고열로 인해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오히려 낡고 오래된 북한의 재래식 무기들이 중동과 아프리카 일대에서 인기가 많다고 한다. 현재 불법무기를 수출하는 경쟁국가들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북한은 불법무기 시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기도 하다.

중고무기의 재판매는 북한의 오랜 특화 분야이다. 더욱이 북한은 무기 사용법 교육 등 다양한 군사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아프간 정정불안으로 인한 내전 내지 준전시상태의 지속은 북한에게는 중고무기와 신무기를 판매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올해 노동당 창건기념일에 예년에 실시해왔던 열병식 대신에 사상 처음으로 국방전람회를 개최한 것이 자신들의 전략무기를 소개 및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다.

대미 기싸움의 발판 마련

아프간전 종료는 바이든식 대외정책의 실패와 더불어 북한의 외교력 강화에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규정하에 첨단무기와 군사적 일방주의에 의해 수행되었던 미국의 대테러전쟁은 실패로 돌아갔고 대외정책에 있어서 협상과 외교력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아프간사태는 북한에게도 대외전략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추어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지만 북한이 이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프간전을 통해 얻은 자신감은 북한의 강경한 대미정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개입주의의 명제 아래 패권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미국의 대외정책은 자국 현안 우선과 중국 견제라는 명분하에 아프간사태를 계기로 철회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전쟁과 같은 미국의 일방주의적이고 팽창적인 대외정책은 당분간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아프간사태가 북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중국 견제에 몰두하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력이 거세져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그로 인해 북한의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 아프간 철수와 관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세계전략의 주적 개념이 중국으로 확실하게 변화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식의 중국 견제가 강화될 경우, 한미일 관계 강화를 위한 미국의 압력도 커질 것이고 중국 견제를 위한 대북압박 수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중고에 처해 있는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아프간 철수 이후 국정지지율 하락 등에 따라 내부적 입지를 강화해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 간의 기싸움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대미 기선제압을 위한 무력도발 등을 택하기보다는 과감하게 대화에 나서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